



미 증시, 오미크론, FOMC 불확실성 등으로 약세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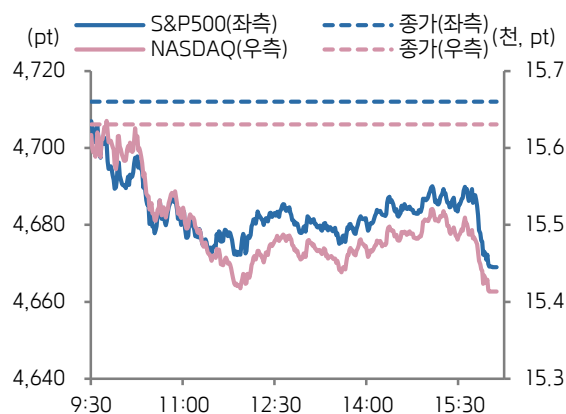
13 일 (월) 미국 증시는 오미크론 우려감 재부각과 FOMC 를 앞둔 경계감이 경기민감주와 성장주를 중심으로 약세압력을 가하면서 하락 마감. 영국은 주말 사이 오미크론 사례 급증과 첫 사망자 발생으로 방역 조치를 4 번째 단계로(최대 5) 강화, 중국에서도 첫 오미크론 사례가 발견되면서 최근 일부 해소되었던 오미크론 우려감이 재부각되며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다우 -0.89%, S&P500 -0.91%, 나스닥 -1.39%, 러셀 2000 -1.42%).

업종별로 부동산(+1.3%), 유틸리티(+1.2%), 필수소비재(+1.2%) 등이 상승한 반면, 에너지(-2.8%), 경기소비재(-2.4%), IT(-1.6%) 등은 하락. 장기물 금리 하락에 불구하고 애플(-2.1%), 엔비디아(-6.8%), 아마존(-1.5%), 테슬라(-5.0%) 등 대형 기술주들도 하락하며 지수 하락을 견인.

이날 공개된 OPEC 월간 원유시장보고서는 오미크론 충격은 “가볍고 단기적”으로 진단하며 우려했던 것보다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OPEC 은 기존 수요(올해 하루 570 만 배럴 증가, 내년 420 만 배럴 증가) 및 공급 전망치를 유지했지만, 올해 연말 예상한 강한 소비 회복이 내년 초로 지연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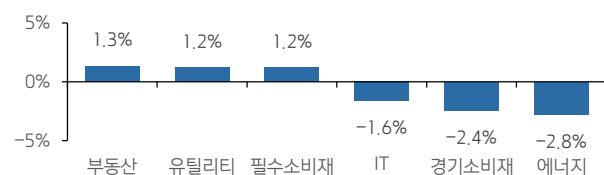
개별 종목별 흐름으로 화이자(+4.6%)가 아레나파나(+80.4%)를 67 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에 힘입어 급등. 오미크론 우려감 재부각으로 모더나(+5.8%), 노바백스(+1.5%) 등 백신 관련주들은 상승, 보잉(-3.7%), 델타 항공(-3.4%), 카니발(-4.9%) 등 여행 관련주들은 큰 폭 하락. 한편 월마트(+1.8%), 코카콜라(+2.6%) 등 필수소비재 종목들은 인플레이션 환경의 수혜주로 주목을 받으며 전거래일에 이어 연일 상승.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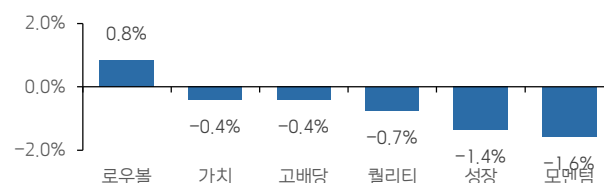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을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668.97	-0.91%	USD/KRW	1,180.83	-0.03%
NASDAQ	15,413.28	-1.39%	달러 지수	96.35	+0.26%
다우	35,650.95	-0.89%	EUR/USD	1.13	-0.23%
VIX	20.42	+9.26%	USD/CNH	6.38	-0.02%
러셀 2000	2,180.50	-1.42%	USD/JPY	113.56	+0.11%
필라. 반도체	3,814.43	-2.56%	채권시장		
다우 운송	16,210.82	-1.18%	국고채 3년	1.782	-1.5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167	-2.8bp
Eurostoxx50	4,183.04	-0.38%	미국 국채 2년	0.637	-1.8bp
MSCI 전세계 지수	746.26	+0.36%	미국 국채 10년	1.414	-7bp
MSCI DM 지수	3,188.26	+0.5%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238.54	-0.73%	WTI	71.24	-0.6%
MSCI 한국 ETF	78.03	-1.3%	금	1787.6	+0.1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는 1.3% 하락, MSCI 신흥국 ETF는 1.6%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69%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85.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 1년 기대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인한 12월 FOMC 경계심리 심화 가능성 2. 테슬라(-6.0%) 등 미국 성장주 급락이 국내 성장주들에 미치는 영향 3. 정부의 P2E 사업 규제 리스크 부각에 따른 관련 테마주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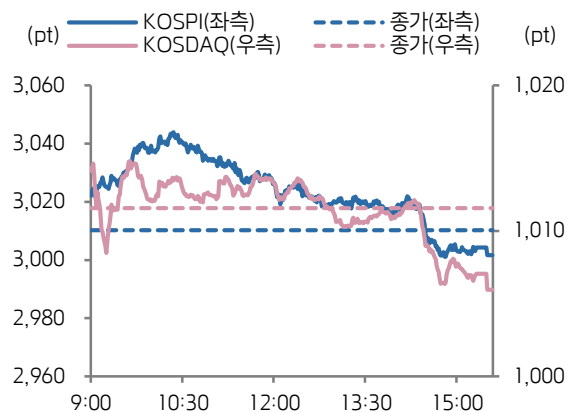
현재 오미크론은 전세계 60 개 이상 국가에서 발발하고 있으며, 해당 변이 확진자가 속출한 영국(약 3,100 명대)에서는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를 제치고 지배적인 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그러나 주요 국가 기관 및 의료 기관에 따르면, 부스터샷 접종을 통해 중증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이 보건 차원에서 안도 요인. 증시에서도 시장참여자들은 오미크론보다는 한국시간으로 16 일(목) 새벽에 발표되는 12월 FOMC 결과에 경계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

경제 및 물가 전망과 점도표가 공개되는 3,6,9,12월 FOMC는 주요 금융시장의 변곡점을 만들어내므로, 여타 FOMC 비해 중요도가 높은 것은 사실. 이번에는 테이퍼링 가속화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금리인상 가속화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높아진 모습. 지난 10 일(금) 발표된 11월 소비자물가는 6.8%로 약 40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뉴욕 연연에서 발표하는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도 6.0%(이전 5.7%)로 역대급을 기록하는 등 고인플레이션 부담감이 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 불안을 초래. 현재 채권시장에서는 내년 3회 금리인상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으며, 첫 금리인상 시기도 5월 FOMC로 앞당겨서 예상하는 등 매파적인 연준 스탠스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예상에 부합했으며,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도 정점을 형성한 만큼, 12~1월 미국 소비자물가 정점 기대감도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결국, 12월 FOMC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기 변동성 확대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예측보다는 확인 후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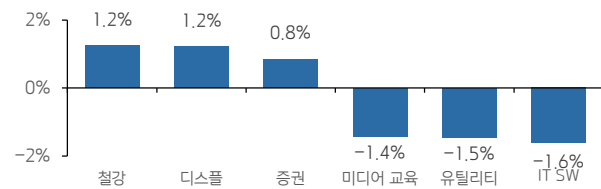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도 12월 FOMC 불확실성에서 기인한 미국 증시 약세에 영향을 받아 하락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미국 증시가 테슬라(-5.0%), 애플(-2.1%), 엔비디아(-6.8%) 등 고밸류 성장 테크주들을 중심으로 약세를 연출한 만큼, 관련 국내 업종들의 주가 하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또한 한국과 중국에서 사행성 등을 이유로 P2E(Play to Earn)를 규제하려는 정부 정책 불확실성이 재차 부각되고 있음을 감안 시, (최근 해당 이슈가 기반영되며 주가조정을 받긴 했지만) 금일 NFT, 메타버스 등 관련 테마주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에도 경계하는 것이 적절.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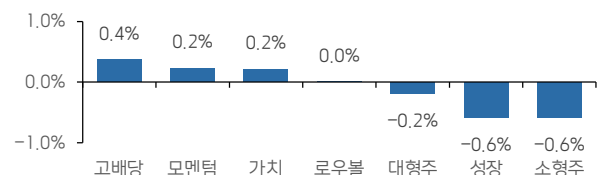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취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며,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